

<RA 종료 보고서>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Crowdworks의 경영기획실 RA를 시작하여, 2021년 2월 26일까지 어느덧 약 5개월의 RA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할 수 있는 그간의 RA활동을 되돌아보며 RA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1. 수행 업무 및 방식 소개

우선 제가 이곳에서 RA로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명함에 저의 직함으로 GPR PM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GPR'은 Government Public Relations라는 의미이며 저는 경영기획실 RA 중 대정부 사업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에 정부 관련 업무를 저의 가장 큰 role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투입되어 업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게 진행 및 수행했던 업무는 약 4개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한 소개와 수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첫번째 프로젝트는 입사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 '대정부 사업 전략 도출'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과 같은 정부의 데이터 기업 지원 사업에 대응한 Crowdworks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에 대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확보 가능한 매출 추정 및 정부 사업 관점에서 진입해야 할 산업 분류 등을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프로젝트의 수행 방식은 제가 대정부 사업 프로젝트를 맡은 것처럼 4명의 RA들이 각각 하나씩 프로젝트를 맡아 PM으로서 타 RA들에게 R&R을 부여하는 프로젝트 리딩권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Crowdworks의 새로운 Product인 아카데미의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카데미의 2021년 사업 방향성 및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카데미 사업계획서 프로젝트는 첫번째 프로젝트와는 달리 아카데미 현업분들의 주도 하에 경영기획실 RA인 제가 투입되어 서포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Crowdworks의 전사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사 사업계획서인 만큼 경영기획실의 이사님과 매니저님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었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제가 수행했던 업무는 Crowdworks의 20년도 사업 수행에 있어 명과 암을 확인하기 위한 Crowdworks 직원 대상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대정부 사업 관련하여 Crowdworks 사업 운용에 있어 필요로 하는 리서치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이사님의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정리하여 장표화 하는, 짧은 호흡에 끝내야 하는 업무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4개 정도의 프로젝트 중 첫번째 프로젝트인 '대정부 사업 전략 도출'은 RA가 PM으로서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방식이었다면, 나머지 3개의 프로젝트는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일부에 RA 리소스

를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RA인 저에게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첫번째 프로젝트인 '대정부 사업 전략 도출'은 **RA인 제가 직접 하나의 프로젝트에 ownership을 갖고 리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한 뒤, 우선 순위에 맞춰 업무를 달성해 나가는 체계화를 경험해 보았다는 점, 그리고 RA들 뿐 아니라 이사진 분들, 그리고 실제 현업 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었던 3개 업무는 프로젝트 당 수행되어야 할 업무에 리소스가 투입되는 방식으로, 업무 진행에 있어서 경험이 더 많은 분의 리딩을 통해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 어깨너머 배울 수 있었으며, **실무자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실적인 부분을 우선 순위로 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두 업무 방식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해 보자면, 우선 RA 개개인 ownership을 갖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RA가 실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받는 사람과 RA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얼라인과 실무자들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었더라면 방향성 핸들링에 있어서 시간을 아끼고 보다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반면에 수행되어야 할 업무에 리소스가 투입되는 즉, **ownership이 없는 프로젝트 수행의 경우**에는 개인의 성향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욕심 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의지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에 대한 우려감**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회사의 인력 운용 방향성 및 프로젝트 오너의 성향에 따라 적합한 업무 수행 방식이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 제공을 통한 아웃풋을 기대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오너십을 제공하는 방식이, 반면에 정해져 있는 R&R을 명확히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면 오너십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며, 또한 RA가 주어진 업무 뿐 아니라 느리지 않은 속도로 스스로 방향성 수립 및 주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성향이라면 오너십이 부여되는 프로젝트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대했던 점과 만족도

다음으로는 **Crowdworks의 RA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감과 실제로 기대에 충족했던 부분 및 그 이상으로 좋았던 부분, 그리고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Crowdworks에서 경영기획실의 RA를 하기 이전에 경영전략을 저의 진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경험을 기반으로 고민 정도였던 저의 진로를 확신으로 바꿀 기회를 기대하며 이곳에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부분을 상세하게 보면, 경영 전략 관련 업무를 넓게 경험하는 것과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열심히 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 제가 Crowdworks에 기대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위 부분들 중 가장 기대에 충족했던 부분은 경영전략 관련 업무를 넓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업무들과 수행 방식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듯이, 경영기획실 RA 관리를 담당했던 이사님은 RA들이 본인의 업무에 오너십을 갖고 책임감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길 원하셨고, 그만큼 RA들에게 많은 기회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즉, 본인의 의견을 구조화 및 논리화 하여 청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아웃풋을 만들기 바라시는 마음에, 최대한 RA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스스로 답을 얻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피드백 관련해서는 기대에 충족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이 모두 있었습니다. 우선 중간 관리자인 매니저님이 있으시기 전까지는 이사님이 매우 바쁘신 탓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는 어려웠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면, **피드백을 주실 때 솔직하게 아쉬웠던 부분과 실무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열심 열심(?)한 분위기의 환경을 좋아하는데, 업무에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던 부분도 RA 활동의 만족도를 매우 높여준 요소 중 하나였으며, 저를 제외한 4명의 RA 친구들과 이사님, 매니저님 등 좋은 인연을 얻었다는 점도 기대 이상으로 얻은 부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쉬운 점이 있듯이, Crowdworks에서의 RA 활동도 그랬지만 기대했던 부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RA 활동이었습니다. 아직 약 한 달 간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 점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협업 툴 의견

다음으로 **경영기획실의 RA들과 이사님 및 매니저님의 협업 툴 중 하나였던 Swit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Swit 사용은 본래 PM이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 과정 공유 및 원활한 소통과 협업 그리고 daily 및 weekly lesson & learn 작성 채널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첫번째 목적이었던 '프로젝트 진행 과정 공유 및 원활한 소통과 협업' 같은 경우에는 PM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고 RA들간의 업무에 교집합적인 부분인 줄어들다 보니 해당 부분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R&R 공유와 각자의 자료 공유 용도로서 '협업'의 의미로 원활하게 사용이 되었으나, 이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swit을 사용하지 않는 실무진들과의 협업이 많아지다 보니 swit 활용도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Swit을 RA의 협업 툴로서 사용하게 된다면 RA 이상의 관계자들이 없는 프로젝트일 경우에 더욱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목적이었던 **daily 및 weekly lesson & learn 작성 채널로의 활용은 결론적으로 도**

움이 되었던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daily, weekly, monthly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외에도 observation diary를 weekly로 작성하는 것이었으나, RA들의 의견으로 lesson & learn은 daily만 작성하게 되었고, observation diary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lesson & learn같은 경우에는 퇴근 15분전에 작성하였으며 당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배운 점과 아쉬웠던 점을 위주로 적었습니다. 별 내용을 적지 않더라도, 하루동안 세운 업무 계획과 계획을 실현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thinking logic**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되돌아본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해당 작성 내용에 대해 이사님이 피드백을 남겨 주셨으나, 이후에는 매니저님께서 작성을 해 주셨고 이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받음과 동시에 **managing**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무가 바빠지는 탓에 피드백 주기가 길어졌던 부분이었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4. 마무리

마지막으로 Crowdworks 경영기획실 RA 활동에 대한 한줄평으로 종료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스스로 하는 고민과 생각만큼 개인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님, 매니저님 그리고 RA분들과 크라우드웍스는 저에게 진로, 소통 그리고 업무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고,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RA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약 한 달 간의 기간이 남아 있으나, 위에 적은 내용 말고도 RA 활동을 통해 얻은 점, 배운 점은 한 가지 이상 더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지만, RA가 끝난 뒤에는 활동 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